

셸리의 *Ode to the West Wind*에 나타난 서풍의 실체

전 응 주
(천안여고)

Jeon, Woong-Ju. (1999).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Shelley's *Ode to the West Wind*.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5, 259~272.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Shelley's *Ode to the West Wind* is the divine providence which influences all things in this world- that is, whether they are on land, in the sky, or in the sea. The divine providence is the manifestation of something beyond the present and tangibel object. In the first stanza,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the wild wind, the breath of Autumn's being, the unseen presence, the azure sister of the Spring, a Destroyer, a Preserver, the winged seed, a creator, a philosopher, a poet, Shelley, and the wild spirit moving everywhere. In the second stanza,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cloud, the angel of rain and lightning, fierce Maenad, the approaching storm, the congregated might, the black rain, the fire, hail, solid atmosphere, the tremendous power of revolutionary change, and the power that influences all things in the sky. In the third stanza,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the voice that makes the oozy woods which wear the sapless foliage of the Atlantic, and the power makes the blue Mediterranean wake from his summer dream, the fit medium of expression which Shelley's soul was seeking for, Shelley's passion, Shelley's partner, Shelley's co-worker, and a strong presence which influences in the sea. In the fourth stanza,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the mightest presence, the power, the strength, the free presence, the uncontrollable, the wanderer over heaven, a vision, the tameless, the swift, the proud and the God who can save Shelley from the heavy weight of hours and lift Shelley as a wave a leaf, a cloud. In the fifth stanza,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the mighty harmony, the fierce Spirit, Shelley's spirit, the impetuous spirit, incarnation of this verse, spark, the trumpet of a prophecy, the Providence which can make the Winter depart and call Spring, and the prophet. To conclude, the real nature of the west wind in this poem is Shelley's accumulated insight that he visualize his impulse of revolutionary thought.

I

셸리(Percy Bysshe Shelley)는 1792년 8월 4일 영국 남부의 웨스트 서섹스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 시기에 영국은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혁명적인 프랑스와의 항쟁으로 어두운 상황들을 지니고 있었다. 인습, 형식, 부당한 권력, 허위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질서가 새로운 사상과 개혁을 방해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시인은 평생을 기성 제도와 도덕에 반발하면서 평생을 이상사회를 이루려는 혁명의 열정을 불태웠던 낭만주의자였다.

시인이 성장한 시기는 대부분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암울한 시대였다. 특히 1819년은 시인에게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작품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시기였다. 그는 그 해에 외롭고 고독한 삶을 보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폭넓은 독서를 하고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가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된다. 그의 가족이 로마로 가기위해 나폴리를 떠난다. 딸 켈 빅토리아가 태어나고 어린 아들 윌리엄 셸리가 북동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 아들의 시체는 로마의 프로테스탄트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 이 무렵 지치고 불안한 심정으로 지내던 아내 메어리 가드윈은 또 다른 임신을 하게 되어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 그 해 11월에 아들 퍼시 프로렌스가 태어

난다. 이러한 탄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아이러니는 시인이 『서풍부』를 쓰기 3년전인 1816년에도 발생한다. 그 해에 아들 윌리엄이 탄생되며, 전처인 해리어트가 하이드 파크 연못에서 투신자살을 한다. 1918년에는 딸 클라라가 죽는 비운을 겪게 된다. 1819년은 정치적으로도 어두운 한 해였다. 1819년 영국의 맨체스터 피터들판에서 영국의 노동자 연합회 회원들이 보통참정권과 곡물법 철폐에 대한 야외집회를 열었을 때 영국의 군인들이 영국정부의 지시를 받고 대량학살을 벌였다. 1819년 『무정부의 가면』, 『영광의 상속자 영국인』 등의 작품을 써서 혁명정신을 고양하고 독재자와 살인자의 만행을 고발하였으며, 이러한 시기에 유명한 시 『서풍부』라는 작품을 썼다. 이러한 시인의 생애와 시인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및 성서에 입각하여 서풍부의 실체를 고찰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바람의 신은 서풍(Zephyr), 북풍(Boreas), 동풍(Eurus), 남풍(Notus)이다. 북풍은 삭풍을 동반한 가장 광포한 바람이고, 동풍은 일으키는 변덕스러운 바람이며, 남풍은 따뜻하나 질병을 가져오는 바람이다. 서풍의 신은 가장 자비로운 신으로 봄에 불어서 눈을 녹이며 비를 가져와 꽃을 피우며 작물을 자라게 한다. 바람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이 있고 신화에서도 정령이나 신이 되는 등 초자연적 존재이며 순환의 이미지이고 호흡, 탄생, 움직이는 공기, 변화와 붕괴의 대리인, 자만심과도 관계가 있다.

계절의 주기와 연관된 바람의 탄생은 냉담함에서 정신적인 활기로 바뀌는 정신적인 내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적인 존재로 제시되며, 상상력의 결여로부터 성경의 예언자들과 유사한 독창력의 분출과도 대응된다. 헤브라이어,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기타 다른 언어들 안에서 바람, 호흡, 영혼, 그리고 영감이란 단어들은 서로 동의어들이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셸리의 서풍은 라틴어의 *spiritus*로서 바람, 호흡, 영혼, 영감, 가을의 존재의 숨결이며 가을의 존재는 지상,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봄에 소생을 재촉하기 위해서 가을에 파괴를 하는 존재이고, 이런 중심적 이미지 주변에서 시인은 식물, 인간, 신에 있어서 죽음과 재생의 다양한 순환주기를 시로 엮어내고 있

다(Abrams 540).

1819년 가을 10월 어느날 플로렌스의 숲에서 셸리는 서풍이 이는 가운데 『서풍부』를 착상하게 된다. 셸리가 그 자신의 주석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이 시는 플로렌스 근처의 아노강을 둘러싼 어느 숲 속에서 착상되고 씌여졌다. 그 날 폭풍우 같은 사나운 바람이 가을비를 퍼부를 수증기를 모으고 있었다. 그 날 해질 무렵에 그 지방에 독특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과 비를 쏟아 부으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셸리는 낭만시인으로서 그가 접하는 자연현상을 형이상학적으로 관조하였다. 그는 현존하는 구체적인 물체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Letter to the Peacock). 『서풍부』는 그가 시인으로서 뛰어난 관찰력과 이해력으로 그가 본 것을 초인적이고 예언적인 상징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Hodgart 117).

따라서 셸리에 있어서 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그가 가정내에서 겪은 가정내의 삶과 죽음, 정치적 상황등 제반 상황들이 이 시에 영향을 주었으니 곧 그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관조 하였던 것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자연의 신을 객관적인 외부현상에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초월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자연관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셸리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서풍을 통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신을 관조하였던 것이다.

『서풍부』는 5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리의 전개상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연에서 3연은 자연을 다룬 것이며 4연에서 5연은 시인을 다루고 있다. 각연은 이탈리아 식 소네트와 영국식 소네트를 변형한 것이며 한 연은 4개의 테트라 리마와 결론부를 이루는 2행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3연에 나타난 자연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묘사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는 바람의 위력에 관한 것이다. 후반부의 4, 5연에서는 시인 자신이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1연에서 서풍의 실체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다.

오 거센 서풍이여, 그대 가을의 숨결이여!
보이지 않는 너의 존재로부터 죽은 일세들은
마치 마법사로부터 도망치는 유령처럼 달아나는구나.

누르스름하고, 검고, 창백하며, 병에 걸린 듯 빨간
 역병에 고통받는 무리들: 오 그대 서풍은 날개
 달린 씨앗들을 어두운 겨울의 침상으로 몰아간다.

그 음울한 침상에서 잎새들은 무덤속의 시체처럼
 차갑고 낮게 누워있나니, 너의 하늘빛 자매인 봄이

꿈꾸는 대지위에 나팔을 불어대고(향기로운 꽃봉오리들을
 양떼처럼 대기속에서 기르기 위해 몰아대면서)
 언덕과 들판을 아름다운 색조와 향기로 가득 채울 때까지,

거센 정령이여, 그대는 모든 장소에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파괴자인 동시에 보존자여; 내 말을 들어다오, 들어다오!

위에서 보듯이 서풍은 사나운 존재, 가을의 존재의 숨결, 보이지 않는 존재, 봄의 하늘빛 자매, 거센 정령, 파괴자, 보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풍은 대지를 떠도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차원을 넘어 모든 대지위의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것이며 전지전능한 신처럼 무소부재의 존재인 것이다. 서풍은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자처럼 나무로부터 죽은 잎들을 떨어뜨리며 가을을 어두운 겨울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서풍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이 대기속에서 자라도록 봄을 소생시켜 언덕과 들판을 아름다운 색조와 향기로 가득 채우는 존재인 것이다. 『서풍부』에서 언급된 서풍의 별칭을 열거해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 거친 존재, 자유분방한 존재, 통제할 수 없는 존재, 길들일 수 없는 존재, 빠른 존재, 자만심 강한 존재, 사나운 존재, 격렬한 존재, 가을의 존재의 숨결, 파괴자, 보존자, 실체, 정신, 모든 곳에서 움직이면서 만물에 작용하는 존재등이다(Pung-ou 267).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인 것이다. 시인은 자연현상의 일부인 계절의 순환속에서 사회의 바람직한 개혁에 대한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절망과 희망이 뒤엉켜 있는 갈등을 구체화하면서 지상의 식물의 지배자요, 필연의 존재인 바람에게 기원을 한다(Reiman 97). 서풍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나 영원불변의 존재이며 그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지상의 보이는 물건을 휘몰아치며, 빠르게 움직이게 하며, 파괴하고 보존하는 것이다(Haines 152).

서풍은 힌두교의 시바(Shiva)처럼 파괴와 구원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파괴자이면서 보존자인 서풍은 분리된 자아(Double, Doppelgänger)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밀턴의 『실락원』에서 마음은 그 자신의 집이기에 스스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과도 일치된다. 날개달린 씨앗이란 표현은 성서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연상시킨다. 여호와가 날개달린 천사를 타고 바람날개로 높이 상승하듯이 날개달린 씨앗도 서풍의 힘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서풍은 파괴자와 보존자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겉모습이 연약해보이면서도 마음속은 자유분방하며 주변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칼날같이 예리한 면을 가진 시인은 서풍의 실체와 아주 흡사하다. 결혼제도를 반대하면서도 어린 신부와 도피행각을 벌였던 카멜레온적인 시인의 실체도 서풍의 실체와 일치된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파괴는 필수적이며 그런 파괴를 통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시를 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시인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파괴자로서의 서풍은 구제도나 구악습을 파괴할 수 있는 개혁의 힘을 말하며 그런 개혁을 통해서만 정의와 선이 넘치는 이상국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파괴자와 보존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헤겔의 정반합의 이론처럼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연에서도 서풍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다.

가파른 하늘의 격동속으로 내가 흘러가면
느슨한 구름들은 하늘과 대양의 형클어진
지상의 부패한 낙엽들처럼 흩어진다.

비와 번개의 사자들 네 공중의 물결의 파란 표면에
어떤 격렬한 미내드(바카스신의 여사제)의 머리로부터
풀어헤친 빛나는 머리카락처럼
아득한 지평선 끝으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접근해오는 폭풍우의 머리칼이 흩어져 있다.

너 죽어가는 해의 만가여

저물어 가는 밤도 그대에게는
 그대의 모든 수증기가 응결된 힘으로 둥근 천정을 이룬
 거대한 무덤의 둥근 천정이 되리라.

그대의 단단한 대기로부터
 검은 비, 불, 우박이 터져나오리: 오 들어보라!

2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혁명적 변화의 동적인 힘과 거대한 힘으로 묘사되고 있다. 서풍은 이제 하늘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구름들은 서풍의 대리자이며 비와 번개의 사자로 비유되고 있다. 격렬한 미내드는 파괴적인 힘을 암시하고 있고 폭풍우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혁명에 비유될 수 있다. 서풍의 힘으로 모아진 수증기의 힘은 압제자와 독재자들을 파괴시킬 새로운 혁명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폭풍우는 광명의 세계를 여는 혁명에 비유되고 있으며, 필연에 의해 기존 체제가 결집된 힘인 민주 혁명 세력에 의해 타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김근식 91). 서풍은 광명의 세계를 여는 혁명의 정신이며 기존의 타락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가져올 혁명가이고 시인 자신인 것이라 볼 수 있다. 1819년 가을 피털루 사건에 의해 분출된 시인의 엄청난 정치적 열의는 1821년에 가사야 줄어들게 된다(Haines 147). 그리고 당시 그가 노동계급을 위한 시를 쓰고 지주계급과 산업자본가들의 부패한 생활을 증오한 점을 고려한다면 2연의 서풍의 실체는 혁명사상이며 시인 자신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819년 영국』이란 시에서 시인은 왕 조지 3세와 그의 여러 자식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맨체스터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술에 취한 기병대들이 강제로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한 피털루 대학살을 격렬히 비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은 비, 불, 우박등은 구 시대의 악습이나 제도들을 소탕할 필연적인 혁명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공존하는 선악이 충돌하듯이 민중과 권력자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필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2연에서는 서풍이 하늘과 구름에 행사할 영향력을 논의하고 있다. 구름은 비와 번개를 뿌리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검은 비, 불, 우박을 동반한 거대한 폭풍우가 터져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여호와의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여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번개와 뇌성들, 지진이 발생하게 하며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게 한다. 그러므로 2연의 서풍은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호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연의 서풍의 실체를 알아보자.

푸른 지중해를 여름의 꿈에서 깨어나게 한 서풍이여
 바이아에 만에 있는 부석섬 옆에서 수정같은 물결의
 소용돌이에 고이 잠들어 너무나 달콤해서 생각만해도

기절할 것 같은 하늘색 이끼와 꽃들로 우거진 옛 궁전들과
 탑들이 파도의 더욱 강렬한 햇빛속에서 떨고 있는 지중해를
 잠속에서 본 서풍이여!

그대는 그대의 진로를 위해 대서양의 공평한 세력들을 틈을
 갈라 놓았다. 한편 깊은 바다 밑에서는 바다꽃들과 대양의
 수액이 없는 잎을 지닌 습기찬 숲이 그대의 목소리를 알고는

갑자기 겁에 질려 공포로 잿빛이 된채 몸을 떨면서 잎새귀들을
 떨어뜨린다. 오 들어보라 서풍이여!

서풍의 위력은 1연에서는 지상에 2연에서는 하늘에 3연에서는 바다에 끼치고 있으며, 서풍의 진로는 상승에서 하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서풍의 주기적 순환을 말하면서 인류문명의 필연적인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의 혹독한 독재와 탄압은 대서양에게조차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풍과 같은 거대한 혁명세력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이상세계가 오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연에 수액이 없는 해초의 잎은 부패한 사회, 구체도의 악습이며 1연의 역병에 걸린 무수한 나뭇잎들처럼 고질화된 사회악을 상징하고 있다(김근식 92). 갑자기 겁을 먹고 잿빛이 되어 몸을 떠는 바다밑의 수액없는 잎새들은 고질화된 기성제도, 인습, 부패한 독재적 권력을 상징하며 서풍은 그런 사회악을 일소할 수 있는 혁명가요, 선구자로서 시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풍은 코올리지의 「낙담」에 등장하는 바람처럼 동적이며 파괴적이고 전우주에 존재하는 힘

으로 파괴자이면서 보존자의 성격을 가진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바람인 것이다(Reiman & Powers 620). 서풍은 우주의 죽음과 재생의 순환적 과정을 지속시키는 삼라만상의 지배자인 것이다. 3연의 대서양의 공평한 세력들을 틈을 갈라놓았다는 부분은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미국 독립 혁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정정호 124). 바다속의 식물들이 서풍의 영향에 의하여 육지의 식물들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이 바다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동감하고 있다. 셀리가 채식주의자를 생각할 때 바다속의 식물도 의미가 있는 듯하다. 셀리와 그의 동료들은 프랑스 혁명, 미국의 혁명, 산업 혁명 기간 동안에 식사요법의 중요성을 토론하면서 혁명은 인간의 신체와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관심은 농정심, 박애주의, 생태학, 사회적 변화, 반관동이었다(Morton 1). 그렇다면 수액이 없는 해초의 잎들이 서풍을 통해서 생기기있는 해초로 재생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나뭇잎들이 새봄에 재생될 날개 달린 씨앗을 지니고 있듯이 파리한 해초의 잎들은 싱싱한 잎으로 재생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역할을 재촉하는 주체는 서풍이라고 볼 수 있다. 3연에서 서풍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대서양의 공평한 세력들을 틈을 갈라놓았다는 부분은 성서의 출애굽기의 15장에서 모세가 바다위로 손을 내어밀자 여호와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부분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물을 갈라지게 한 것은 바람이며 그 바람의 실체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3연에서도 서풍의 실체는 전지전능한 신이며 우주의 섭리를 조절하는 절대자인 것이다.

4연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네가 운반할 수 있는 죽은 낙엽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날 수 있는 구름이라면
 그대보다 자유롭지는 못해도 그대 힘의

충동을 함께 하며 그대의 힘밀에
 헐떡이는 파도라면, 오 통제할 수 없는 자여!
 내가 어렸던 소년 시절처럼

하늘에서 방랑하는 너의 동료가 될 수 있다면,

그 시절에는 그대의 하늘을 나는 속도를
이겨내는 것이 공상이 아니었기에

나는 이와 같이 간절한 욕구로 기도를 하면
그대와 겨누지 않았을 것을. 오 나를 파도처럼,
낙엽처럼, 구름처럼 일으켜 다오!
나는 인생의 가시밭에 쓰러져 피를 흘리노라.

세월의 무거운 중압감이 나를 사슬로 묶고 굴복시켰네.
그대와 같이 길들일 수 없고, 빠르고, 자존심 강한
나를 쇠사슬로 묶고 굴복시켰구나.

4연에서는 시인의 낙담, 절망, 고뇌들이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서풍처럼 길들일 수 없고, 재빠르고, 자존심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함을 비통한 심정으로 한탄하고 있다. 4연에서 코울리지의 「낙담」, 7연에서처럼 의미심장하고 극적인 진행을 위한 명령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기진맥진한 상태, 고통, 억압당함, 절망등을 고백하면서 「고독의 정령」에서 절벽의 끝에 서있는 시인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Powers 622). 시인은 자신이 인생의 가시밭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고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서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의 이미지와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의 이미지와 흡사하며 시인은 성경의 예수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서풍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서풍의 힘에 의해서 불어 날리는 낙엽이 되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구름처럼 빠른 존재가 되어 비와 번개를 가져와 부패한 기존의 부조리를 파괴하길 바라며, 서풍의 힘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시인은 마음 속에서 하늘에서 방랑의 동반자였던 서풍처럼 강렬함, 불꽃같은 정열, 힘을 지녔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가며, 이제는 나이와 죽음과 삶의 공포속에서 피로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Cohen 50).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인간을 바람에 동화시키며 바람을 인간화시킨다. 그리고 서풍의 실체를 길들일 수 없는자, 빠른자, 자만심이 강한자로 언급한다. 그러면서 서풍에게 죽은 낙엽, 빠른 구름, 파도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자신이 갖

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시인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서풍이 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성경의 어조를 사용하여 서풍을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서풍을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자신도 신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풍의 실체는 시인의 상상적인 비전이며 시인의 기도의 대상이며 시인을 가시밭 길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인 동시에 쓰러진 사람들을 구원해 줄 시인 자신이며 선지자적 존재인 것이다. 서풍에 시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직도 혁명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재생의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계절의 주기가 순환하고 인류의 문명이 흥망성쇠의 주기가 반복되듯이 시인의 절망과 희망도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암흑기가 있으면 광명의 시기가 오듯이 시인의 절망과 고뇌가 있으면 시인의 재생과 혁명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의 서풍에 대한 기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후에 무덤속에서도 부활하였듯이 부활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연을 살펴보자.

나를 너의 수금으로 삼아다오, 저 숲과도 같이
내 잎들이 저 숲의 잎처럼 떨어진들 어찌하리!
그대의 힘찬 조화의 격동은

슬프나 감미로운 깊은 가락을
양자로부터 얻으리라, 거센 정령이여!
나의 영혼이 되어다오. 네가 내가 되어다오. 맹렬한 자여!

나의 죽은 사상을 온 우주에 휘몰아다오.
새로운 탄생을 재촉하는 시들은 낙엽처럼
그리고 이 시의 주문에 의하여

마치 꺼지지 않은 화로의
재와 불꽃처럼 인류사이에 내 말을 흩뿌려다오!
잠자는 대지에 내 입을 통해 전해다오

예언의 나팔이 되어다오.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멀 수 있으랴?

시인은 서풍에게 자신을 수금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한다. 자신도 서풍처럼 거센 영혼이 되기를 간구한다. 지신의 죽은 사상을 다시 일깨워 꺼지지 않는 화로의 불꽃처럼 혁명사상이 깃든 자신의 시를 온 인류에게 전파해 달라고 서풍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돈호법을 사용하여 애타게 서풍에게 기원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쇠퇴해가는 정신과 무상함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시인은 자신을 서풍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전파하려고 한다. 시인, 예언가, 개혁가로서 켈리는 몽매한 사람들에게 마치 서풍이 활기없는 자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듯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Cohen 51). 시인은 처음에는 서풍의 수금 내지는 숲의 나뭇잎이 되어 자신이 서풍의 영향력을 받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이 되기를 바라나 후반부에는 자신이 생기넘치는 서풍과 한나가 되기를 바라고 서풍처럼 강력한 정령이 되어 혁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인, 예언가, 개혁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풍의 실체는 시의 주문이요, 꺼지지 않는 불씨, 예언의 나팔, 그리고 시인 자신의 정신세계이기도 하다. 서풍은 냉담한 영혼을 재생과 생동으로, 정신적 황폐를 창조적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의문문을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계절의 순환주기처럼 인간의 일들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고 도덕적 변화의 주기는 그 과정 속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Reiman 97). 그러므로 혁명의 비전을 가진 선구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겨울에서 봄이 오듯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인이 인류문명에 회의적인 철학을 지닌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서풍부』의 마지막 구절은 겨울이 오면 봄이 오리라는 희망이 담긴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다. 시인은 독재와 복종을 증오했고 인간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바랐다. 당시의 세계는 어둡고, 잔인하고 위선적이고 지나치게 물질적이었다. 그런 시대는 이 시의 겨울과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풍부의 마지막 구절은 아주 희망적이다(Cohen 52). 겨울뒤에 찾아 올 새로운 질서인 봄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는 것이며 인간은 곧 자유롭게 되고 사랑과 행복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풍부』에서도 시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과 경고의 나팔이 아닌

예언의 나팔이 되게 해달라는 부분을 보아도 마지막 구절은 희망적인 예언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성서의 요한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 천사도 나팔을 분다. 5연도 성서의 '나팔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부분은 이 시의 5연에 등장하는 예언의 나팔은 선지자내지는 선구자인 서풍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III

이제 서풍의 실체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1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시인이며, 거친존재, 가을의 숨결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봄의 하늘색 자매, 파괴자이면서 보존자인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지닌 자, 지상의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자, 사회의 악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자, 날개 달린 씨앗, 대지의 자연질서의 순환을 통제하는 자, 전지전능하며 무소무제한 신 내지는 성령이다. 2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검은 비, 우박, 불과 같은 혁명세력이며 새로운 생명과 새 시대를 여는 엄청난 파괴력, 하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이다. 3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바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대서양을 가를 수 있는 거대한 혁명세력, 거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이며 시인의 정신이며 신념이다. 그리고 4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통제할 수 없는, 빠르고, 자존심 강한 젊은 날의 시인이며 인격화된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쓰러진 시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자, 시인에게 재생의 힘을 줄 수 있는 자이다. 5연에서 서풍의 실체는 강력한 존재, 격렬한 정령, 꺼지지 않는 불씨, 예언의 나팔, 예언가, 죽음과 겨울을 몰아내고 새 생명과 봄을 재생시킬 절대자인 것이다. 그리고 시인이 시를 쓸 당시의 가정적으로 겪었던 식구들의 죽음, 피털루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해된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서풍의 실체는 시인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겨울뒤에는 봄이 오고 어둠 뒤에는 광명이 오듯이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과 독재정치 후에는 정의와 평화가 오리라는 마음 속에 그러던 상상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풍의 실체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다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인류 문명속의 순환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식. Shelley시에 나타난 정치개혁 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 1996.
- 셸리(정정호 역). 세상 위의 사람들. 서울. 1991.
- Abrams, M. H.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II, 4th, ed., W.W. Norton & Co. 1979.
- Cohen, Murray. *The Poetry of Percy Bysshe Shelley*. New York: Monarch Press, 1965.
- Haines, Simon. *Shelley's Poetry: The Divided Self*. London: Macmillan, 1997.
- Hodgart, Patricia. *A Preface to Shelley*. London & New York: Longman, 1985.
- Powers, Sharon B. *Shelley's Poetry and Prose*, W. W. Norton & Co., 1977.
- Morton, Timothy. *Shelley and the Revolution in Taste*. New York: Cambridge, 1994.
- Leigh, Pung-ou. "Ode to the West Wind: Its Modes of Thought," *ELLAK*, Vol. 27. No. 2. Seoul, 1981.
- Reiman, Donald H. *Percy Bysshe Shelley*. Boston: Twayne Publishers, 1969.